



Freud(1928)는 낙관성에 대하여 ‘신이 인간을 구원할 것이라는 종교적 신념의 형태를 띤 종교적 낙관성일 경우는 때로 인간의 가능성을 높여 주긴 하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부정하고 현실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이같은 Freud의 언급에서 시사하는 것처럼 심리학내에서 낙관성은 ‘본질과 현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현실 세계를 왜곡해서 바라보게 하는 허황된 기제’라고 오랫동안 인식되어져 왔다. 그러나, 인간의 건강하고 적응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긍정적 심리학에서는 낙관성(optimism)을 인간이 현실을 왜곡시킴으로써 비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게 하는 기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역경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원동력이며 동기로서 파악한다(Peterson, 2000).

낙관성이 인간 본질의 긍정적인 차원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낙관성에 대해 보다 깊고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Scheier와 Carver (1992)는 낙관성이란 기질적인 것으로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며, 나쁜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보편적인 기대감”이라고 정의하였다. 기질적인 낙관성은 개인의 적응 과정, 심리적 및 신체적 건강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안정적인 심리적 변인으로 알려져 왔다. 낙관성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어려운 상황에서 심리적인 고통을 적게 경험하고 보다 더 안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상황에 적응해 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cheier, Carver, & Bridges, 1994). 또한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 낙관성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수용, 유머 사용을 하는 등 보다 적응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지니고 상황에 대처한다고 한다(김주희, 1995; Scheier

et al., 1994).

낙관성은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적응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 되어왔다. 인간관계 측면에서 낙관성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호감을 많이 주고(Carver, Kus, & Scheier, 1994), 더 오랫동안 우정을 유지한다고 보고 되었다(Geers, Reilly, & Dember, 1998). 그리고 낙관적인 사람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원을 받고(Park & Folkman, 1997),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를 더 증가시키는 특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Dougall, Hyman, Hayward, McFeeley, & Baum, 2001). 이렇듯 낙관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서, 인간관계에서 적응을 잘 한다고 할 때 이러한 차이는 어떠한 이유에서 생겨나는가?

대인관계 이론에 따르면 적응적인 대인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대인기술적인 차원 뿐 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인관계도식(interpersonal schema) 자체에서 차이가 난다고 한다(Baldwin, 1992). 즉, 적응적인 대인관계를 지닌 사람들은 적응적인 대인관계도식을 지니고 있으므로 비교적 일관되게 적응적인 대인관계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Soygüt & Savaşir, 2001).

Safran(1986; 1990)은 대인 도식을 자아-타인 관계의 일반화된 표상이라고 개념화했다. 인간은 생애 초기에 애착대상과의 상호 작용을 기반으로 대인 도식을 추상화하고, 애착 대상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상호작용을 예언하도록 대인 도식을 구성한다고 보았다(Hill & Safran, 1994). Safran(1990)에 의하면 대인도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내가 만일 x를 한다면, 다른 사람은 y를 할 것이다” 예로, “내가 만약 화를 낸다면, 다른 사람들은 앙갚음을 할 것이다” 혹은, “내가 상처

받기 쉬운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은 나를 버릴 것이다”의 형태를 들 수 있다.

대인관계이론의 모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대인관계 원형 모델(circumplex model)을 들 수 있다. 이 모델에서는 성격특질이나 정서는 개념적으로 그리고 수학적으로 원형으로 배열되는 것으로 가정되며 특히 이 원형 모델은 성격의 대인관계적 측면에 잘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남운, 2001). 그러나, 원형 모델은 심리학자들이 성격특성이나 정서의 기본 구조를 찾기 위해 사용했던 접근 방식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왔다(Plutchik & Conte, 1997).

대인관계 원형모델은 Sullivan 등의 영향을 받은 Leary(1957)에 의해 제시되었는데 대인관계의 차원을 크게 통제차원과 친애차원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고, 친애차원은 우호-냉담으로, 통제차원은 지배-순종의 두 축을 가진 대인관계 원형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인관계적 행동들은 이 두 축으로 이루어진 대인관계 원형의 어딘가에 위치하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대인관계 원형모델에서는 대인 관계의 적응성을 설명하기 위해 상보성(complement)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상보성이라는 개념은 Bateson (1936)의 인류학적 연구에서 처음 등장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인간의 상호작용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정도의 상보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Leary의 이론에 기초하여 친애(우호-적대) 차원과 통제(지배-순종)의 두 차원으로 구성된 대인관계 원형 모델은 현재까지 모두 네 종류가 제안되었으며(Leary, 1957; Lorr & McNair, 1965; Wiggins, 1979; Kiesler, 1983), 이들은 많은 경험적 연구들을 촉발하였다. 이 중 가장 종합적이며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Kiesler(1983)의 대인관계 원형이다(그림 1 참조). 대인관계 원형에서는 바로 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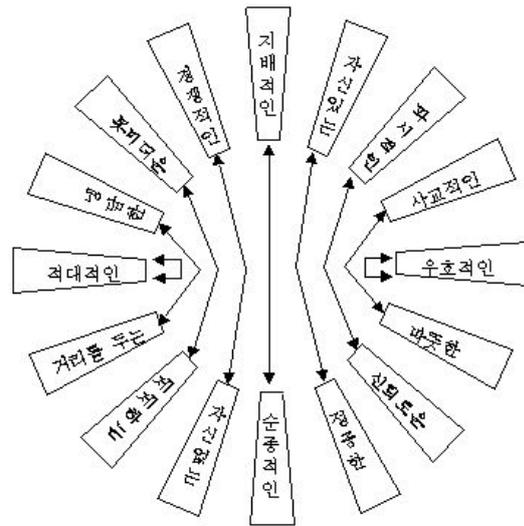


그림 1. 대인관계 원형모델그림

출처: Kiesler, D. J. (1983). The 1982 interpersonal circle: A taxonomy for complementarity in human transactions. *Psychological Review*, 90, p. 201.

주. 화살표로 연결된 행동들은 상보적 관계에 있는 행동들이다.

에 배열된 행동들끼리 유사하며, 지름의 반대편으로 갈수록 서로 반대되는 행동이 되어 대각선의 반대쪽에 위치해 있는 두 행동은 이론상 가장 강한 음(-)의 상관을 가지게 된다. 반면, 이웃한 행동들끼리는 강한 양(+)의 상관을 가지게 되며, 또한 서로 직교하는 두 행동은 독립적인 두 차원에 해당하는 행동들으로써 영(0)의 상관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적대적인 행동과 우호적인 행동은 이론상 가장 강한 음(-)의 상관을 갖게 되고 적대적인 행동과 지배적인 행동은 서로 직교하며 이론상 영(0)의 상관을 갖는다.

대인관계 원형 모델에서 서로 상보적 반응이란 친애(적대-우호)차원은 같고 통제(지배-순종)차원은 반대인 반응들이다(정남운, 1999; Soyğüt & Savaşır, 2001). 즉, 우호에는 우호로, 적대에는

적대로, 지배에는 순종으로, 순종에는 지배로 반응하는 것이 상보적 반응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보적 반응을 이끌어 내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Leary, 1957). 즉,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보적 행동을 이끌어냄으로써 대인관계에서 안정감을 유지하게 되지만 비상보적 행동은 불안을 유발하게 된다.

대인 관계 원형이론을 바탕으로 대인관계에서의 상보성과 대인관계의 적응성과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연구한 연구로는 Hill과 Safran (199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우울 정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대인관계 상보성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 우울 정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이 지배적인 행동을 하면 상대방은 순종적인 행동을 하고, 순종적인 행동을 하면 상대방은 지배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 친애차원에서는 우울 정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우호적 상황과 적대적 상황 모두에서 상대방이 우호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고, 그러한 반응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최근에 Soygüt와 Savaşır(2001)는 Hill과 Safran (1994)의 연구모델을 보다 정교화하여 대인관계의 대상을 어머니, 아버지, 친구로 세분화하고 대인관계의 도식이 우울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터어키인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의 결과에 따르면 우울 정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지배, 순종, 우호적인 상황에서는 높은 상보적인 반응을 기대했으며, 적대적인 상황에서는 비상보적인 반응, 즉 우호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이러한 우호적인 반응이 바람직한 반응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상보적인 반응에 대한 기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Kiesler의 대인관계 원형이론에 근거하여 낙관성의 수준에 따라 대인관계 도식

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Kiesler의 대인관계 원형이론에서 친애차원에 해당하는 우호-적대적인 대인관계 상황에서 낙관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함에 있어서 어떠한 대인 도식을 사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첫째, “낙관성의 수준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은 자신이 우호적(적대적)인 행동을 하였을 때 상대방 상보적인 반응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또한 “대인관계 대상(어머니, 아버지, 친구)이 누구냐에 따라 자신의 우호적(적대적)인 행동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다를 것으로 기대하는가?”를 살펴 볼 것이다. 이때, 상보적인 반응이란 우호적인 행동에 대해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적대적인 행동에 대해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둘째, 낙관성의 수준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은 자신이 우호적(적대적)인 행동을 하였을 때, 예상되는 상대방 행동에 대한 평가에 대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대인관계 대상(어머니, 아버지, 친구)이 누구냐에 따라 자신의 우호적(적대적)인 행동에 대한 반응에 대해 바람직성의 평가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로 진술될 수 있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4년제 대학에서 인간관계심리학, 교육심리학, 사회심리학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응답자는 총 267명으로 남자 137명(51.3%), 여자 130명(48.7%)이었다. 응답자들의 평균연령은 22세이며 연령의 범위는 18세에서 30세이었다.

측정도구

**낙관성 검사**

낙관성은 Scheier, Carver와 Bridges(1994)의 생활 지향검사 개정판(Revised Life Orientation Test; LOT-R)을 연구자들이 번안하여 측정하였다. LOT-R에서 측정하는 낙관성은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며 나쁜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편적인 기대감”으로 정의되었다. LOT-R은 낙관성을 단일차원으로 측정하는 도구로 모두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3개 문항은 긍정적 진술문항이며(예: 불확실한 때 나는 대체로 최상을 기대한다, 나는 언제나 내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이다), 3개 문항은 부정적 진술문항이다(예: 나는 나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거의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원하는대로 일이 될 것이라고 거의 기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 4개 문항은 참여자가 질문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끼어 넣은 문항들(filler items) 문항이며(예: 나에게 있어 긴장을 푸는 것은 쉽다, 나는 그리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 채점에서 제외된다.

LOT-R은 5점 리커트식 척도로서 참여자들은 각각의 문항을 읽고 자신이 문항에 제시된 바와 같이 느낀 정도를 0에서 4중 하나에 응답하게 되어있다(0 = 매우 그렇지 않다, 4 = 매우 그렇다). 총점범위는 0점~24점이며, 부정적 진술문항은 역점수로 환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낙관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이 연구에서 참여자가 평정한 LOT-R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68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도식에 관한 질문지**

대인관계도식에 관한 질문지는 Hill과 Safran(1994)이 개발한 대인관계도식 질문지(Interpersonal

schema questionnaire; ISQ)를 연구자들이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ISQ는 Kiesler(1983)가 애착이론과 대인관계이론을 기반으로 만든 대인관계 원을 이론적 모델로 삼았다.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Kiesler의 대인관계 원은 가로축으로 우호-냉담의 ‘친애차원’과 세로축으로 지배-순종의 ‘통제차원’이라는 두 축을 가진 원형으로 16분원으로 나뉘어있고 각 분원은 원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대인관계행동특성을 나타낸다. ISQ는 이 16가지 대인관계행동 특성에 해당하는 16가지 대인관계상황을 참여자들에게 상상하도록 지시한다. 이때 어머니, 아버지, 친구와 같이 의미있는 타자와 참여자 자신이 16가지 대인관계상황 안에 있다고 상상하게 한다(예: 당신이 어머니에게 화가 나있고 따지고 싶습니다, 아버지에게 당신의 중요한 일에 대해 털어놓는 장면을 떠올려보세요). 참여자는 제시된 대인관계상황에서 각각 어머니, 아버지, 친구와 함께 있다고 상상하고 각 상황에서 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를 예상한 후, 자신의 예상과 가장 가까운 타인의 반응을 제시된 8개의 문항 중에서 고르도록 한다(예: 초조해하거나 싸울 것이다, 나를 존중하고 믿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호-적대의 친애차원에서의 대인관계도식을 알아보고자 하므로 16가지 대인관계상황 중에서 우호적인 상황에 해당하는 3가지 상황과 적대적인 상황에 해당하는 3가지 상황을 선택하여 총 6개의 상황만을 참여자에게 제시했다.

참여자들이 고른 예상반응은 Safran과 Hill의 점수 안내서(1989)를 기준으로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채점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인관계 원형이론의 상보성 개념을 기초로 대인관계도식을 수량화하여 상보적 반응에 대해서는 1점, 비상보적 반응에 대해서는 -1점을 주었다. 여기에서 상보적 반응이란 우호적인 상황에서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이며, 반대로 우호적인 상황에서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면 비상보적 반응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머니와 잘 지내고 도움을 주고받는 상황입니다. 어머니는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라는 우호적인 상황에서 참여자가 “어머니가 따뜻하게 대해주거나 나에게 우호적일 것이다”라는 우호적인 반응을 예상했다면, 이는 상보적 반응이므로 1점으로

채점하고, 참여자가 “어머니가 초조해하거나 싸울 것이다”라는 적대적인 반응을 예상했다면 비상보적 반응이므로 -1점으로 채점한다. 참여자들의 예상 반응은 상보적인 정도에 따라 1, .5, 0, -.5, -1의 점수를 부여받게 되며 예상반응에 대한 구체적인 배점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참여자는 세 개의 우호적인 상황과 세 개의 적대적인 상황을 세 명의 타자들과 함께 한다고

표 1. 우호상황과 적대상황에서 상호성 점수배점

우호상황 시나리오	1. 당신이 “___”와 잘 지내고 있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황입니다. 2. 당신이 “___”에게 진실한 관심을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3. 당신이 “___”에게 애정과 따뜻함을 느끼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반응 문항과 배점	a. 책임을 지거나,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다. (0) <sup>1)</sup> b. 실망하거나 화를 내고 비판할 것이다. (-.5) c. 초조해하거나 싸울 것이다. (-1) d. 거리를 두고 별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5) e. 내 의견을 따라주거나 분명치 않은 행동을 할 것이다. (0) f. 나를 존중하고 믿을 것이다. (.5) g. 따뜻하게 대해주거나 나에게 우호적일 것이다. (1) h. 흥미를 보이거나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알려주려고 할 것이다. (.5)
적대상황 시나리오	1. 당신이 “___”에게 화가 나있고 따지고 싶습니다. 2. 당신이 자신의 생각에 몰두해 있어서 “___”와 거리감을 느낀다고 상상해 보세요. 3. 당신이 불쾌한 하루를 보내고 온통 짜증이 나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애정을 느낄 수 없고 진심이 우러나오지도 않습니다.
반응 문항과 배점	a. 책임을 지거나,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다. (0) <sup>1)</sup> b. 실망하거나 화를 내고 비판할 것이다. (.5) c. 초조해하거나 싸울 것이다. (1) d. 거리를 두고 별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5) e. 내 의견을 따라주거나 분명치 않은 행동을 할 것이다. (0) f. 나를 존중하고 믿을 것이다. (-.5) g. 따뜻하게 대해주거나 나에게 우호적일 것이다. (-1) h. 흥미를 보이거나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알려주려고 할 것이다. (-.5)

주. ( )안의 숫자는 배점; <sup>1)</sup> 1: 상보적 반응, -1: 비상보적 반응

상상하게 하므로 총 18개의 상황에서 의미있는 타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지를 예상하게 한다. 우호적인 상황과 적대적인 상황에서 보이는 참여자들의 대인관계도식 점수의 범위는 각각 -3점에서 3점 사이이다. 이때, 점수가 높을수록 상보적인 반응을 많이 한 것을 의미한다. 즉 우호적인 상황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의미있는 타자들이 참여자 자신에게 우호적인 반응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며 적대적인 상황에서 의미있는 타자들이 적대적인 반응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참여자들은 각 상황에서 타인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지 예상하고 응답한 후, 자신이 예상한 타인의 반응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각 반응에 대해서 7점 리커트식 척도에 평정하도록 한다(1=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7=매우 바람직하다). 이렇게 측정된 대인관계에서 상대방 행동에 대한 바람직성의 점수 범위는 우호적, 적대적 상황에서 각각 3점에서 21점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평정한 ISQ의 우호상황에서 대인관계도식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67, 적대상황에서 대인관계도식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69이었으며 바람직성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5이었다.

#### 연구절차

본 조사는 서울 및 경기도에 있는 대학교 2개에서 인간관계심리학, 교육심리학, 사회심리학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을 실시되었다. 실시 시간은 15분에서 25분이 소요되었다. 회수한 280부 중에서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13부를 제외한 총 267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낙관성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분류하기 위해 LOT-R의 점수가 전체 인원 중 상위 30%에 속한 집단(75명)을 낙관성이 높은 집단이라고 분류하고 LOT-R의 점수가 전체 인원 중 하위 30%에 속한 집단(81명)을 낙관성이 낮은 집단이라고 분류하였다. 이 분류에 따라 낙관성이 높은 집단의 LOT-R의 점수는 18점에서 24점 사이이며(평균: 12.27, 표준편차: 1.40), 낙관성이 낮은 집단의 LOT-R의 점수는 1점에서 14점 사이였다(평균: 11.95, 표준편차: 2.48).

대인관계 상황에서 상대방의 상보적인 반응에 대한 기대와 예상되는 반응의 바람직성에 대한 평가가 응답자의 낙관성의 수준 상위 30% 집단과 하위 30% 집단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낙관성 상, 하위 각 집단에서 관계 대상에 따라(어머니, 아버지, 친구) 그리고 상황의 특성(우호, 적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낙관성 수준을 집단간 변인으로, 상황의 종류(우호적, 적대적)와 관계 대상(어머니, 아버지, 친구)을 집단내 변인으로 하여 Split-plot 디자인을 사용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낙관성 수준에 따른 대인관계 도식의 특징

낙관성의 수준에 따라 우호적, 적대적 상황에서, 관계대상(어머니, 아버지, 친구)에 따라 상대방의 상보적 행동에 대한 기대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를 보면, 낙관성의 수준 및 대상의 차이에 상관없이 우호적인 상황에서 적대적인 상황에서 보다 상보적인

표 2. 낙관성 수준에 따라 우호/적대 상황에서 상대방의 상보적 행동에 대한 기대

	우호적 상황			적대적 상황		
	아버지 M(SD)	어머니 M(SD)	친구 M(SD)	아버지 M(SD)	어머니 M(SD)	친구 M(SD)
낙관성 상위집단 (N=74)	2.18 (.70)	2.35 (.58)	2.30 (.54)	.18 (1.29)	.28 (1.42)	.11 (1.28)
낙관성 하위집단 (N=81)	2.01 (.97)	2.22 (.85)	2.11 (.88)	.31 (1.23)	-.01 (1.40)	.16 (1.45)
전체 (N=155)	2.28 (.93)	2.09 (.86)	2.20 (.74)	.24 (1.26)	-.14 (1.41)	.14 (1.37)

주. 점수범위: 3 ~ -3 (점수가 높을수록 상보성이 높은 것을 의미함)

행동에 대한 기대가 크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우호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 상대방도 역시 우호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의 평균이 2점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자신이 적대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 상대방도 적대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의 평균은 모두 1점 이하로 나타났다.

낙관성의 수준에 따라 상대방의 상보적인 행동

에 대한 기대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1,153)=.003$ ,  $p=.96$ ). 또한 낙관성의 상, 하위 집단 내에서 상황의 차이에 따라 그리고 관계대상에 따라 상보성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 낙관성 수준 및 상황, 대상에 따른 상보성 기대의 차이

변량원	변인수준	df	SS	MS	p
집단간 변인	낙관성 수준				
	상	(1,153)	88.36	88.36	.003
	하				
집단내 변인	상황	(1,153)	1038.29	1038.29	512.50***
	우호적				
	적대적				
집단내 변인	대상	(2,152)	2.04	1.02	1.56
	어머니				
	아버지				
	친구				
상호작용	상황*낙관성수준	(1,153)	5.25	5.25	2.59
	대상*낙관성수준	(2,152)	.83	.42	.63
	상황*대상	(2,152)	13.41	6.70	6.81***
	상황*대상*낙관성수준	(2,152)	.22	.11	.1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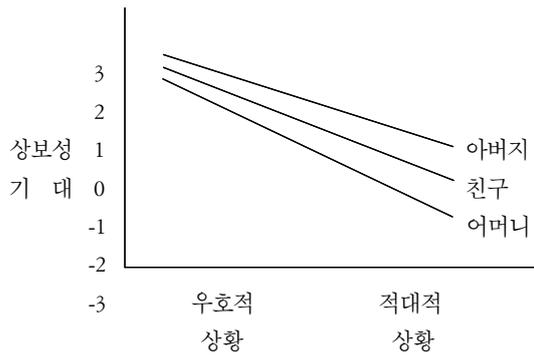


그림 2. 우호적, 적대적 상황에서 대상에 따른 상보성에 대한 기대의 차이

표 3에 따르면 상황의 종류에 따라 상대방의 상보적 행동에 대한 기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1,153)=512.50, p<.001$ ), 대상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황과 대상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상호작용 효과의 구체적인 방향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2에 의하면 우호적, 적대적 상황에 상관없이 상보성에 대한 기대는 아버지, 친구, 어머니에 대한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기울기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경우에 기울기의 정도가 가장 큰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어머니는 자신이 적대적인 행동을 한 경우에도 우호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를 보여주며, 아버지는 자신이 우호적인 행동을 한 경우에만 우호적인 반응을 기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낙관성 수준에 따른 예상되는 타인행동의 바람직성 평가의 차이

낙관성의 수준에 따라 우호적, 적대적 상황에서, 관계대상(어머니, 아버지, 친구)에 따라 예상되는 상대방의 행동이 얼마나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에 따르면 자신이 우호적인 행동을 한 우호적인 상황에서 예상되는 상대방의 행동을 적대적인 행동을 했을 때 예상된 상대방의 행동에 비해 모든 경우에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상황에서 어머니가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반응을 가장 긍정적으로, 그리고, 친구, 아버지의 순으로 긍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긍정성의 수준에 따라 상대방 반응의 예상반응의 긍정성 평가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표 4. 낙관성 수준에 따라 우호/적대 상황에서 예상되는 상대방 행동의 바람직성 평가

	우호적 상황			적대적 상황		
	아버지	어머니	친구	아버지	어머니	친구
	M(SD)	M(SD)	M(SD)	M(SD)	M(SD)	M(SD)
낙관성 상위집단 (N=74)	17.81 (2.52)	18.37 (2.34)	18.49 (2.00)	13.73 (3.51)	14.73 (3.47)	14.00 (3.23)
낙관성 하위집단 (N=81)	17.10 (3.02)	17.65 (3.29)	17.30 (2.55)	13.42 (4.00)	14.38 (3.47)	14.42 (3.93)
전체 (N=155)	17.44 (2.81)	18.00 (2.89)	17.87 (2.38)	13.57 (3.76)	14.55 (3.47)	14.22 (3.61)

주. 점수범위: 3점 ~ 21점

표 5. 낙관성 수준 및 상황, 대상에 따른 예상되는 상대방 반응의 긍정성 평가

	변량원	변인수준	df	SS	MS	p
집단간 변인	낙관성 수준	상 하	(1,154)	53.65	53.65	2.00
집단내 변인	상황	우호적 적대적	(1,154)	3152.92	3152.91	294.21***
		어머니 아버지 친구	(2,153)	97.02	48.51	6.20**
상호작용		상황*낙관성수준	(1,154)	36.96	36.96	3.45
		대상*낙관성수준	(2,153)	.98	.49	.06
		상황*대상	(2,153)	7.01	3.50	.94
		상황*대상*낙관성수준	(2,153)	19.72	9.98	2.64

\*\*\* $p < .001$  \*\* $p < .01$

변량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1,154)=2.00, p=.16$ ). 또한 각 집단 내에서 관계대상에 따라, 상황에 따라 예상되는 상대방 행동의 바람직성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집단내 2원 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을 보면, 집단내 변인인 상황 변인과 대상 변인 모두 상대방의 예상반응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F(1,154)=284.21, p<.001; F(1,153)=6.20, p<.01$ ). 구체적으로 자신이 우호적인 행동을 했을 때 예상되는 상대방의 행동이 적대적인 행동을 했을 때 예상된 상대방의 행동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대상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우호적 상황과 적대적 상황 모두에서 아버지의 예상반응을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우호적인 상황에서는 친구의 예상 반응을, 적대적인 상황에서는 어머니의 예상반응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상호작용 효과는 아무 것

도 유의하지 않았다.

##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낙관성이 높은 집단과 낙관성이 낮은 집단 간에 타인의 행동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각 상황에서 예상되는 상대방 행동의 바람직성 평가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낙관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내 변인으로 상황 변인(우호적 상황과 적대적 상황) 그리고 대상변인(어머니, 아버지, 친구)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몇 가지 논의점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낙관성 수준에 따라 상대방 행동에 대한 상보성의 기대, 그리고 예상되는 상대방 행동에 대한 바람직성 평가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낙관성이 높을

수록 적응적인 대인관계를 지닌다는 선행연구들이 시사한 것(Carver, Kus, & Scheier, 1994; Dougall, Hyman, Hayward, McFeeley, & Baum, 2001; Geers, Reilly, & Dember, 1998; Park & Folkman, 1997)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이전 연구들은 대인관계의 적응적인 결과, 즉 사회적지지, 우정관계, 스트레스 등을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도식이라는 보다 내현적 변인을 측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인관계 도식이란, 대인관계 과정에 일반화된 자기 자신 및 상대방에 대해 지니고 있는 정신적 표상으로서 질문지를 통하여 이렇게 복잡한 내현적인 과정을 타당하게 측정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대인관계 도식에 있어서 상황과 대상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의의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우호적인 행동을 한 경우에 상대방도 우호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자신이 적대적인 행동을 하고 상대방도 적대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정도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우호적인 상황에서 예상하는 상대방의 행동이 적대적인 상황에서 예상하는 상대방의 행동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대상에 따라 대인관계 도식에 나타난 차이를 살펴보면 우호적인 상황과 적대적인 상황 모두 아버지가 가장 상보성이 높은 반응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반면, 어머니는 두 상황 모두에서 상보성의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경우,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호적, 적대적 반응을 달리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어머니의 경우는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일관된 반응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경우에 어머니와의 관계도식이 아버지와의 관계도식 보다 더 긍정적인

을 보여준다.

셋째, 상대방의 예상반응의 바람직성에 대한 평가가 낙관성의 수준에 따라, 관계대상, 상황의 종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낙관성의 수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상황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관계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그들 예상반응의 바람직성을 평가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우호적인 상황에서 예상되는 반응을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아버지의 예상반응을 가장 부정적인 반응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인간을 문제와 병리 차원이 아니라 긍정성과 가능성의 새로운 차원에서 조망하여 낙관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실시하였다는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대인관계 원형이론을 기초로 하여 대인관계의 도식을 경험적으로 측정하여,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인지적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데서도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예상한 바와는 달리 낙관성의 수준에 따라 대인관계 도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다음과 같은 점들을 보완하여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제언한다.

첫째, 대상 선정의 문제로 서울, 경기권 대학의 학생들의 경우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성공경험을 한 집단으로 일반 집단에 비해 본 연구에서 적용한 낙관성의 개념, 즉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며 나쁜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편적인 기대감”을 상대적으로 높게 가진 집단이라고 생각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집단을 포함시켜 대상의 특수성에서 오는 효과를 통제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도구의 문화적 타당성 확보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67에서 .69로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두 도구 모두 서구 문화권에서 사용하도록 개발된

척도를 문항의 문화적 타당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번역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도구에 대한 문화적 타당화 작업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낙관성의 수준이라는 한 가지 변인에 따라 대인관계 도식의 차이를 살펴보고 하였으나 대인관계 도식은 매우 다양한 변인들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 작동하는 것으로서 대인관계 도식과 관련된 보다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 상황의 특성과 관계 대상에 따라서 대인관계의 도식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 발달과정에서 부모, 친구들이 대인관계 능력 및 도식에 있어서 상대적인 기여도가 달라진다는 발달원리에 근거할 때 새로운 연구 문제를 시사해 준다. 추후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연령, 성별에 따라 관계 대상의 차이 및 상황의 특성이 대인관계 도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보다 심화된 연구를 실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주희 (1995). 낙관주의와 스트레스 대처방식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남운 (1999). 대인관계적 심리치료 이론에서 본 내담자 문제와 상담자 전략: 개관.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 심리과학, 8, 61-89.
- 정남운 (2001). 대인관계 원형모델에 따른 한국판 대인관계 문제척도의 구성.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 심리과학, 10, 117-132.
- Baldwin, M. W. (1992). Relational schemas and the processing of social inform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2, 461-484.
- Baldwin, M. W., & Keelan, P. (1999). Interpersonal expectations as a function of self-esteem and sex.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6, 822-833.
- Brissette, I., Scheier, M. F., & Carver, C. S. (2002). The role of optimism in social network development, coping,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during a life transition.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82, 102-111.
- Carver, C. S., Kus, L. A., & Scheier, M. F. (1994). Effects of good versus bad mood and optimistic versus pessimistic outlook on social acceptance versus reject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3, 138-151.
- Carver, C. S., Pozo, C., Harris, S. D., Noriega, V., Scheier, M. F., Robinson, D. S., Ketcham, A. S., Moffat, F. L., Jr., & Clark, K. C. (1993). Optimism versus Pessimism predicts the quality of women's adjustment to early stage breast cancer. *Cancer*, 73, 1213-1220.
- Dougall, A. L., Hyman, K. B., Hayward, M. C., McFeeley, S., & Baum, A. (2001). Optimism and traumatic stress: The importance of stress and coping.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1, 223-245.
- Freud, S. (1928). *The future of an illusion*. London: Hogarth.
- Geers, A. L., Reilly, S. P., & Dember, W. N. (1998). Optimism, pessimism and friendship. *Current Psychology: Developmental, Learning, Personality, Social*, 17, 3-19.
- Hill, C., & Safran, J. D. (1994). Assessing interpersonal schemas: Anticipated responses of significant other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3, 366-379.

- Huebner, R. A., Thomas, K. R., & Berven, N. L. (1999). Attachment and interpersonal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Rehabilitation Psychology, 44*, 85-103.
- Kiesler, D. J. (1983). The 1982 interpersonal circle: A taxonomy for complementarity in human transactions. *Psychological Review, 90*, 185-214.
- Leary, T. F. (1957).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Lorr, M., & McNair, D. M. (1965). Expansion of the interpersonal behavior circ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 823-830.
- Mongrain, M. (1998). Parental representations and support-seeking behaviors related to dependency and self-criticism. *Journal of Personality, 66*, 151-173.
- Park, C. L., & Folkman, S. (1997). Stability and change in psychosocial resources during caregiving and bereavement in partners of men with AIDS. *Journal of Personality, 65*, 421-447.
- Peterson, C. (2000). The Future of Optimism. *American Psychologist, 55*, 44-55.
- Plutchik, R., & Conte, H. R. (1997). Introduction. In R. Plutchik & H. R. Conte (Eds.). *Circumplex models of personality and emotion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afran, J. D. (1986). *A Critical Evaluation of the Schema Construct in Psychotherapy Research*. Paper presented at the Society for Psychotherapy Research conference, Boston.
- Safran, J. D. (1990). Towards a refinement of cognitive therapy in light of interpersonal theory: I. Theory. *Clinical Psychology Review, 10*, 87-105.
- Safran, J. D., & Hill, C. (1989). *Interpersonal schema questionnaire*. Unpublished manuscript.
- Scheier, M. F., & Carver, C. S. (1992). Effects of optimism 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Theoretical overview and empirical updat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6*, 201-228.
- Scheier, M. F., Carver, C. S., & Bridges, M. W. (1994).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neuroticism (and trait anxiety, self-mastery, and self-esteem): A reevaluation of the Life Orient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1063-1078.
- Soygüt, G., & Savaşır, I.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schema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 359-364.

원 고 접 수 일 : 2003. 6. 26  
 수정원고접수일 : 2003. 8. 22  
 게재결정일 : 2003. 9. 5

## Difference in Interpersonal Schemas According to the Level of Optimism

Sung-Kyung Yoo

Ha-Na Cho

Ewha Woman's University

In the present study, we examined the difference in interpersonal schemas between people with high level of optimism and those with low level of optimism. Specifically, we assessed how people anticipated the responses from significant others(mother, father, and friend) both in friendly and hostile situations. To assess the interpersonal schemas, we used the Interpersonal Schema Questionnaire(ISQ) developed by Hill and Safran(1994). And the level of optimism was measured by the Revised Life Orientation Test(LOT-R). Research participants were 267 college students. Based on the optimism score, we divided into two groups; high optimism and low optimism groups.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interpersonal schemas according to the level of optimism. However, we found that participants anticipated more complementary responses from father both in friendly and hostile situations. But, they anticipated more positive responses from mother either in friendly or hostile situation. Limitations regarding sampling and validity of the instrument were discussed.

*Key Words : optimism, interpersonal schema, interpersonal circumplex model*